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 지 현

2015년 8월

## <국문초록>

#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현 지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대학생의 스트레스,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스트레스,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군집표집을 통해 2개 대학교를 추출하였다. 엑셀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교별 학과를 무선 표집하였으며, 해당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1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79를 제외한 나머지 735부를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서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검사 개정판을 이지영(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도박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김아영 외

(2011)가 번안한 K-CPGI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Steenbergh 등(1998)의 도박신념질문지(GBQ ; Gambling Belief Questionnaire)를 근간으로 하여 이흥표(2002)가 제작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흥표는 Steenbergh 등(1998)의 GBQ에 도박기술의 작용을 과대평가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52.9%(389명), 여학생이 47.1%(346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34.6%(254명), 2학년 32.8%(241명), 3학년 20.3%(149명), 4학년 12.4%(91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K-CPGI 절단점수를 기준으로 도박중독 수준을 살펴본 결과, 비문제성 도박자 77.6%(570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 위험 도박자 9.7%(71명), 문제성 도박자 7.5%(55명), 저 위험 도박자 5.3%(39명)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약 22.4%는 도박의 위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구결과(권선중, 2014)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박중독에 대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과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성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상담적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가설 .....	3
4. 연구모형 .....	4
5. 용어의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6
1. 도박중독 .....	6
2. 스트레스 .....	10
3. 비합리적 도박신념 .....	13
III. 연구방법 .....	18
1. 연구대상 및 절차 .....	18
2. 연구도구 .....	19
3. 자료처리 및 분석 .....	21
IV. 결과 및 해석 .....	22
1.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	22
2.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검증 .....	23
V. 논의 및 결론 .....	26
참고문헌 .....	29
<Abstract> .....	33
부록목차 .....	35

## 표 목 차

표 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8
표 II-1.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20
표 II-2.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21
표 III-1.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상관관계 .....	22
표 III-2.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	23
표 III-3. 집단별 도박중독의 평균 .....	24

##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모형 .....	4
그림 II-1.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	2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5)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Help-Line으로 도박중독 상담을 의뢰한 대상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4%로, 30대 41.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도박중독률을 살펴보면 권복순, 김영호(2011)의 연구에서 11%,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2014)의 연구에서는 10.3%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 7.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도박중독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변화가 많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다. 이 시기는 정체성 확립, 의존과 독립의 균형,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 동성 및 이성과의 친밀관계 형성,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 등 복잡한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해 위기에 당면하기 쉽다(권중돈, 김동배, 2005).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는 학교와 가정이라는 보호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보호와 관심보다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기에 그들에게 사회적응에 대한 갈등과 심리적 혼란을 안겨주게 된다(이지영, 2007). 이에 따라 이 시기의 대학생은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은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잘 극복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인 양상으로는 자살, 폭행, 가출, 비행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도박중독이다. 이는 중독자들이 대체로 현재 과업에 충실하지 않으며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도박, 인터넷게임, 약물 등에 의존하다가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들을(Kandell, 1998; Blaszczyński & Nower, 2002)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도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Jacobs, 1989; Sharp & Tarrier, 1993;



Holub, Hodgins & Peden, 2005;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Berge, Pietrzak & Petry, 2006; 남전아, 채규만, 2012; 김영경, 2012;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도박중독의 기저에는 스트레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입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사이에서 회복 방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스트레스 완화를 목표로 한 치료개입에 대한 효과연구도 매우 드물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를 연결하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관계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 주도적 대처, 여가활동, 행복경험 등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의 조절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에는 도박동기, 충동성, 가족의 도박수준, 친구의 도박수준, 우울, 불안, 위험감수성향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란 ‘도박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를 말한다(이홍표, 2002).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간에 강한 영향이 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의 사이에도 강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사이의 부정적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높더라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으면 도박중독 수준이 낮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으면 도박중독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작용이 확인된다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

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경험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경험과 도박중독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과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스트레스,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 효과가 있는가?

##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대학생의 스트레스,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4. 연구모형



그림 I-1. 연구모형

#### 5. 용어의 정의

##### 가. 도박중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5)에 따르면 도박 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간과 돈을 도박 행동에 사용하여 일상생활상에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박중독이라 말할 수 있다(이정임, 권정혜, 2015). 이와 유사하게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2014)은 도박중독을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박의 개념을 토대로 ‘과도한 도박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부적응을 야기하는 상태’를 도박중독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나.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자극이나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대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검사 개정판을 이지영(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 교수)로 인한 스트레스와 당면과제(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로 인한 스트레스로 제한하여 측정하였다.

## 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흥표(2002)는 ‘도박의 과정 혹은 도박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라 정의하였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자기 과신적·비논리적 추론과 기술 과대 평가적 추론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과신적·비논리적 추론’은 자신의 도박능력과 도박판에서의 승리를 실제 가능한 것보다 지나치게 과신하고 도박 과정과 결과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잘못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과대 평가적 추론’은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으며, 운보다 기술과 전략의 작용을 과대평가하여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이흥표, 200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에 기초하여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도박행동을 유발하는 잘못된 인지적 신념’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박중독

#### 가. 도박중독의 개념

도박이란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특정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지불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교현, 권선중, 2003;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남전아, 채규만(2012)은 도박행동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현금을 비롯한 재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장정임, 김성봉(2014)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돈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거는 모든 활동으로서 이후 문제성 도박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도박행동이 곧 도박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교현, 권선중(2003)은 도박행동이 조절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되면서 개인적·사회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병적 도박이라 정의하였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5)에서는 도박중독을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2014)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상태’를 도박중독으로 보았고, 이정임·권정혜(2015)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시간과 돈을 도박 행동에 사용하여 일상생활상에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박중독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도박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부적응을 야기한 상태’를 도박중독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도박중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중독자 개인을 넘어서 가족·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도박은 도박중독자 개인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친다(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이경희 외, 2011).

또한 도박중독에 이르면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이경희 외, 2011).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들은 문제도박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심각한 불화를 경험하고(이경희 외, 2011), 파산·이혼·자살(황현탁, 2012; 권선중, 2014)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박정열 외, 2009; 이경희 외, 2011; 권선중, 2014;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이로 인해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결과적으로 도박중독자 주위에는 도박친구들만 남게 된다(박정열 외, 2009; 이경희 외, 2011). 아울러 도박중독은 근로의식 감소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권선중, 2014).

이렇듯 도박중독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박정열 외, 2009). 현재까지도 도박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박중독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장수미, 2013). 그동안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적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유용성이 검증된 일반이론과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긴장감소 이론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도박중독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Jacob(1986)의 중독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addiction)에 의하면,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해소욕구가 중독행동에 이르게 한다.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은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한 가지 시도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된 의존 상태가 바로 중독이다. 이러한 중독행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각성수준을 바꿀 물질을 사용하거나 활동을 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둘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은 정신병리의 발생을 설명하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제시한다. 취약성이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생물학적·유전적·인지적 소인 등을 포함한다. 스트레스란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을 의미한다.

셋째, 긴장감소이론(tensionreduction theory) 역시 도박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강화된 긴장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실제로도 Semaille(2009)는 청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물질중독 뿐만 아니라 사이버 중독, 쇼핑중독, 섹스중독과 같

은 행위중독과 관련이 높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도박을 시작하였다가 병리적 도박문제를 갖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Sharpe & Trarrier, 1993).

이처럼 도박중독의 원인은 다면적이고 복잡하지만, 위 이론적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으나 의존, 병리적 상태 등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대학생의 도박중독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후기 청소년기는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시기다(이인정, 최해경, 2000 재인용). 대학생들은 이러한 발달과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경제·사회적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인간관계, 건강, 취업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은희, 2004).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파인드잡이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1,945명에게 ‘대학생 여름방학과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스트레스에 관련된 기사에서는 대학생 46%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그 중 36.5%가 자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원인은 경제문제(35.5%)와 취업문제(23.9%)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2011 재인용).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 생계형 아르바이트, 학과 공부, 취업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교내 상담센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주간경향, 2015; 영남일보, 2015). 이처럼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및 자신감, 성적,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ines, Norris & Kashy, 1996;

배진화, 2003; 김성경, 2003; 김송화, 2011).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적응 상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취약한 발달 특성을 지닌 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중독행동을 대처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도박중독은 대학생이 선택하게 되는 중독행동의 하나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20대의 도박 참여율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에 따르면, 평생 동안 사행활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초 경험 연령을 살펴본 결과, '20대'가 44.5%로 가장 높았고, '10대' 20.5%, '30대' 19.6%, '40대' 9.1%, '50대' 4.3%, '60대 이상' 1.8%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사행활동을 경험한 약 3,141만 명중 1,398만 명 정도가 20대에 처음 사행활동을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도박행동을 하고 있는 이용객의 경우에도 37.0%가 20대 때 처음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역시 전체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국내 20대 도박중독 유병률은 4.2%로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 5.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미국(3.2%), 영국(2.5%), 캐나다(2.0%), 프랑스(1.3%) 등 국외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이다. 한편 Help-Line 상담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파악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대상자 중 20대(25.4%)가 30대(41.6%)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더욱이 연령상 성인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보편화로 인터넷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대학생의 도박 중독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도박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한우, 2013; 김호진, 조철희, 2013; 권선중, 2014).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가능하며 선행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Jacobs, 1989; Sharp & Tarrier, 1993; Holub, Hodgins & Peden, 2005;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Berge, Pietrzak & Petry, 2006; 남전아, 2010; 김영경, 2012; 유채영, 2012; 남전아, 채규만, 2012;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남전아(2010)의 연구에 의



하면,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35, p<.05$ ),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족 요인과 물질 요인이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5.1%였다( $F=3.514, p<.01$ ).

김영경(2012)의 연구에서도 남전아(201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현재 도박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스트레스, 부모 도박행동, 인터넷 중독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도박행동 수준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설명력은 23%, 스트레스, 부모도박행동, 인터넷 중독 등이 추가될 때 15.5%, 3.1%, 09%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채영(201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beta=.172, p<.10$ )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beta=.153, p<.05$ )이 대학생 문제도박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강할수록 문제도박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2014)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는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135, p<.05$ ), 도박중독에 대한 스트레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F=5.605, p<.05$ ).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의 도박중독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 2. 스트레스

### 가. 스트레스의 개념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 할 만큼 보편적이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한다(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의 라틴어 Stringer에서 유래되었으며, 스트레스의 사전 상 정의는 ‘인간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이다(김진희, 2012).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였고(윤석주, 2014 재인용), 한금선(2005)은 스트레스를 마음의 안정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있어서 큰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또는 그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았다(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재인용).

이처럼 학자들마다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윤석주, 2014). 첫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상황이나 자극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둘째, 스트레스를 일종의 반응으로 보는 관점이다. 즉,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다루기 위해 개인이 시도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반응은 정서적·신체적·행동적 증상들을 의미한다. 셋째,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외부의 자극이나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작용으로 본다.

이와 같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관계’로 정의한다.

스트레스는 사건의 빈도와 자극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중대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스트레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대한 생활사건’이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혼, 심각한 질병, 실직 등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일상적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의미한다. 중대한 생활사건의 경우 특정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생활사건 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Lazarus & Folkman, 1984).

아울러 대학생들은 생애 주요 생활사건보다 주로 일상적인 문제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윤석주, 2014)는 보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잘 이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제한하며,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자극이나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acobs, 1989; Sharp & Tarrier, 1993; Berge, Pietrzak & Petry, 2006;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Steinberga, Tremblaya, Zacka, Bustoa, & Zawertailoa, 2011).

외국 사례를 보면 Jacobs(1989)은 청소년들이 도박행동을 하는 이유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찾았으며, Sharp & Tarrier(1993)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도박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이런 행동이 병적 도박 행동의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Berge, Pietrzak & Petry(2006)는 도박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나 사교성 도박 청소년에 비해 문제성 도박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 및 부정적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많고, 도박 문제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에 감정적이고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을 보였다.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2006)은 스트레스가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teinberga, Tremblaya, Zacka, Bustoa, & Zawertailoa(2011)도 스트레스가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발에 있어서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남전아, 채규만, 2012; 김영경, 2012;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 2014). 남전아, 채규만(2012)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35$ ,  $p<.05$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가족, 학업, 친구, 외모, 물질)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요인과 물질요인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전아, 채규만(2012)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도박에 몰입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스트

레스를 도박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김영경(2012)이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현재 도박행동,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중 스트레스는 현재 도박행동( $r=.46, p<.001$ ), 미래 도박행동의 가능성( $r=.19, p<.001$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와 현재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현재 도박행동뿐 아니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201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자기 통제력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는 도박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20, p<.05$ )을 보인 반면, 자기 통제력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r=-.494, p<.01$ )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이 높아지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중독과 자기 통제력은 유의미한 부적상관( $r=-.164, p<.01$ )이 있었으며, 이는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도박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만을 도박중독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모형 1에서는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F=.5605, p=.018$ ). 스트레스와 자기 통제력을 함께 예측변인으로 본 모형 2에서는 자기 통제력의 주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2.9%의 설명력( $F=5.679, p=.004$ )을 보여 모형 1에서보다 1.5%의 증분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모형 1에서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형 2에서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기 통제력이 투입되면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지만, 국내 선행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유채영(2012)과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2014)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는 매개효과나 보호요인으로써 조절효과 검증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 3. 비합리적 도박신념

#### 가.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개념

도박자는 돈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에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걸고, ‘자신에게 운을 조절하고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이민규 외, 2007). Langer(1975)는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통제력 착각,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 등 도박의 과정 혹은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로 정의하였다. 이홍표(2002)는 ‘도박의 과정 혹은 도박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라 보았는데, 인지적 기대란 ‘주어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갖게 되는 사고’를 말하며, 인지적 오류는 ‘비합리적 언어화 혹은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자기 과신적·비논리적 추론과 기술 과대 평가적 추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과신적·비논리적 추론’은 자신의 도박능력과 도박판에서의 승리를 실제 가능한 것보다 지나치게 과신하고 도박 과정과 결과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잘못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과대 평가적 추론’은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으며, 도박판에서의 좋은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뛰어난 도박 기술이나 분석 능력 덕분이라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이홍표, 2002; 이인혜, 2004).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하거나 다시 하게 된다(Toneatto, 1999;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일반인 집단이 보기에 도박자 집단은 잃을 수밖에 없는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박자 본인은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홍표, 2002).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행위를 시도하며, 그것이 점진적·만성적으로 도박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진 청소년들은 도박성 게임 행동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으며(권선중 외, 2006), 도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되면 도박을 하겠다는 도박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인으로서 비합리적인 도박신념이 간주되고 있다(김교현, 권선중, 2003)

즉,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문제를 유지·강화하는 심리적 특성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홍표, 2002;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토대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도박행동을 유발하는 잘못된 인지적 신념’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

기존에 진행된 실증적 연구들에서 이미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 Brown, 1984; 연미영, 2006; 권선중 외, 2007; 김현주, 2009; 양정남 외, 2011; 장정연, 2011; 류황건 외, 2012; 임동훈, 김혜원, 2012; 김영경, 2012; 이해경, 임동훈, 김혜원, 2014; 권선중, 2014).

Anderson와 Brown(1984)은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게임을 선호하며 위험한 베팅을 한다고 하였다. 도박중독예방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류황건 외(2012)의 연구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 변인의 평균 점수가 높아질수록 다른 변인의 평균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을 살펴본 연미영(2006)의 연구에서 도박행동과 도박신념의 상관계수는 .513( $p < .001$ )으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경(2012)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현재 도박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며,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김현주(2009)가 청소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족·사회 요인을 살펴본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청소년 도박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들을 동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친구 도박 행동, 비합리적 도박신념,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청소년이 지각한 형제·자매 도박행동, 음주행동, 도박 시작 연령, 부모감독,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도박행동 순으로 청소년 도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는 청소년 도박행

동의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청소년 도박행동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해경, 임동훈, 김혜원(2014)에 의하면 현재 도박행동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갖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재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현재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밝혔다.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 양정남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도박행동 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유형과 영향요인을 조사한 장정연(2011)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문제성 게임행동과 관련 있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성 게임행동을 할 가능성이 1.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동훈, 김혜원(2012)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경험 및 미래 도박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위험 요인을 살펴본 권선중 외(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도박 유형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인터넷 도박자'와 '정기적인 오프라인 도박자'들이 '단순 도박경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의 위험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이홍표,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김영화, 신성만, 이혜주(2012)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대상자를 인터넷 도박자, 오프라인 도박자, 도박 무경험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도박행동 유형에 따른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278, p<.01$ ). 인터넷 도박행동 유무에 따른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도박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도박행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t=2.82, p<.01$ ). 이는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진다는 권선중 외(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권선중(2014)은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합법 도박만 이용하는 대학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박 동기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감각추구성향, 부적 정서 등의 비교하였다. 불법 도박을 경험한 경우는 합법 도박만 하는 경우에 비해 회피동기·금전동기·흥분동기·사교동기가 높았고, 강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졌으며, 탈억제 성향 및 불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 언급한 연구결과와 같이, 도박문제가 도박에 대한 잘못된 인지적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도박문제의 개선은 합리적인 신념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이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실제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을 조절한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 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독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조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층화군집 표본추출을 통해 4개 대학교에서 2개 대학교를 추출하였고, 학교별 학과를 무선 표집하였고 해당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사회조사 경험이 있는 3명의 조사원에게 설문지 내용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게 한 후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게 하였다. 총 81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79부를 제외하고 총 73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2.9%(389명), 여학생이 47.1%(346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34.6%(254명), 2학년 32.8%(241명), 3학년 20.3%(149명), 4학년 12.4%(91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K-CPGI 절단점수를 기준으로 도박중독 수준을 살펴본 결과, 비문제성 도박자 77.6%(570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 위험 도박자 9.7%(71명), 문제성 도박자 7.5%(55명), 저 위험 도박자 5.3%(39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I-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3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89	52.9
	여	346	47.1
학년	1학년	254	34.6
	2학년	241	32.8
	3학년	149	20.3
	4학년	91	12.4
도박중독수준	비문제성 도박자	570	77.6
	저 위험 도박자	39	5.3
	중 위험 도박자	71	9.7
	문제성 도박자	55	7.5

## 2. 연구도구

### 가. 도박중독선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김아영 외(2011)이 번안한 K-CPGI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0점~3점)이다. 합산점수를 토대로 0점은 '비문제성 도박자(nonproblem gambling)', 1~2점은 '저위험 도박자(low-risk gambling)', 3~7점은 '중위험 도박자(moderate-risk gambling)', 8점 이상이면 '문제성 도박자(problem gambling)'에 해당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 중독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계수는 .917이다.

### 나.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의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검사 개정판을 이지영(2007)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크게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차원에는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성 친구, 이성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가 하위영역에 포함되고, 당면과제 차원에는 학업, 경제, 장애,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가 하위영역에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받지 않는다(1점)', '거의 받지 않는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자주 받는다(4점)', '매우 자주 받는다(5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정관(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sim .91$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 .967$ 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대인관계 차원	동성친구	16, 17, 18, 40, 41	5
	이성친구	5, 6, 7, 8, 32, 33	6
	가족관계	13, 14, 15, 37, 38, 39	6
	교수관계	19, 20, 21, 42, 43, 44	6
당면과제 차원	학업문제	25, 26, 27, 47, 48, 49, 50	7
	경제문제	9, 10, 11, 12, 34, 35, 36	7
	장래문제	1, 2, 3, 4, 28, 29, 30, 31	8
	가치관문제	22, 23, 24, 45, 46	5
전 체		50	.967

#### 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Steenbergh 등 (1998)의 도박신념질문지(GBQ ; Gambling Belief Questionnaire)를 근간으로 하여 이흥표(2002)가 도박기술의 작용을 과대평가하는 10문항을 추가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1요인인 자기과신적·비논리적 추론은 총 21문항으로, 자신의 도박능력에 대해 과하게 믿는 것, 실제 가능한 것 이상으로 도박판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 도박 과정과 결과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요인인 '기술과대평가 추론'은 총 9문항으로,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고 운보다 전략 및 기술의 작용을 과대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흥표(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고, 권준근(2011)의 연구에서도 .935로 안정된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62$ 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기과신적·비논리적 추론	3, 4, 6, 7, 9, 10, 11, 13, 15, 16, 18, 19, 21, 22, 23, 24, 25, 27, 28, 29, 30	21	.962
기술과대평가적 추론	1, 2, 5, 8, 12, 14, 17, 20, 26	9	.867
전 체		30	.962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셋째,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넷째, 일상적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simple slope)를 구하였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회귀계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홍세희, 2005).

## IV. 결과 및 해석

### 1.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표 III-1.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상관관계 (N=735)

변인	1	2	3	4	5	6	7
1 대인관계차원 스트레스	1						
2 당면과제차원 스트레스	.688***	1					
3 스트레스 전체	.908***	.928***	1				
4 도박중독 전체	.126**	.022	.077*	1			
5 자기과신적·비논리적추론	.343***	.212***	.298***	.348***	1		
6 기술과대평가적 추론	.248***	.258***	.275***	.246***	.744***	1	
7 비합리적 도박신념 전체	.331***	.240***	.308***	.334***	.974***	.876***	1
M	2.00	2.65	2.35	.16	.84	1.52	1.04
SD	.79	.75	.70	.40	.74	.81	.7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1은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전체는 도박중독 전체( $r=.126$ ,  $p<.001$ ), 비합리적 도박신념 전체( $r=.331$ ,  $p<.001$ ) 및 하위요인인 자기과신적·비논리적추론( $r=.343$ ,  $p<.001$ ), 기술과대평가적 추론( $r=.248$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박중독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박중독 전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전체( $r=.334$ ,  $p<.001$ ) 및 하위요인인 자기과신적·비논리적추론( $r=.348$ ,  $p<.001$ ), 기술과대평가적 추론( $r=.246$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도박중독이 심각할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검증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는 1단계에 스트레스를 투입,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투입,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간 상호작용 변인(스트레스×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투입하여 도박중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을 검증할 때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점수에서 각 변인의 평균을 뺀 편차점수를 만들어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홍세희, 2005).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지 분산팽창계수(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2. 스트레스와 도박 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모형	예측변인	B	SE	$\beta$	F	$R^2$	$\Delta R^2$
1	스트레스	.044	.021	.077*	4.386	.006	.006
	비합리적 도박신념	.193	.021	.343***			
2	스트레스	-.016	.021	-.029	46.454	.113	.107
	비합리적 도박신념	.193	.021	.343***			
3	스트레스	-.011	.021	-.020	38.638	.137	.024
	비합리적 도박신념	.182	.020	.323***			
	스트레스× 비합리적 도박신념	.115	.025	.157***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스트레스만을 도박중독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본 모형 1에서는 0.6%의 설명력을 보였다( $F=4.386, p=.037$ ).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함께 예측변인으로 본 모형 2에서는 스트레스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11.3%의 설명력( $F=46.454, p=.000$ )을 보여 모형 1에서보다 10.7%의 증분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모형 1에서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형2에서는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투입되면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모형 3에서 상호작용항(스트레스×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13.7%( $F=38.638, p=.000$ )로 모형 2보다 2.4% 증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beta=.157, p=.000$ ) 도박중독에 대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순기울기(simple slope)검증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도박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단순기울기 검증에서는 조절변수의 속성이 연속변수인 경우 어떤 값을 취해도 무방하나(이인정, 2012),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도박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II-3. 집단별 도박중독의 평균

구분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은 집단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집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	0.92	1.84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0.57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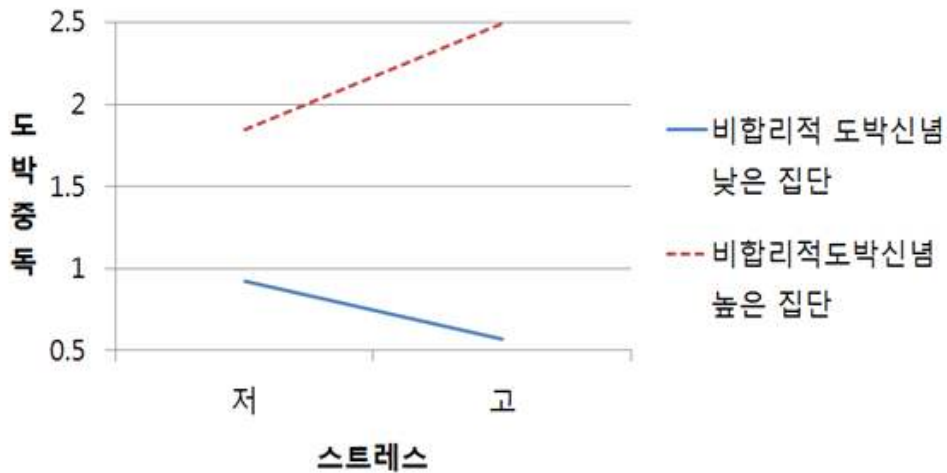


그림 II-1.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

그래프 작성을 위해 일상적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도박중독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상·하위 두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에 따른 도박중독의 평균점수는 표 III-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II-1과 같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집단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에 따른 도박중독의 심각도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일상적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에 있어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스트레스 경험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도박중독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요인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스트레스 경험과 도박중독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간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여 탐색해 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트레스 경험이 도박중독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중독의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31, p<.001$ )을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 $r=.126, p<.001$ )을 보였는데, 이는 스트레스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도박중독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의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Jacobs, 1989; Sharp & Tarrier, 1993;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Holub, Hodgins & Peden, 2005; Berge, Pietrzak & Petry, 2006; 남전아·채규만, 2012; 김영경, 2012; 장정임·윤인노·김성봉, 2014). 또한,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34, p<.001$ )을 나타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도박중독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연미영, 2006; 양정남 외, 2011; 장정연, 2011; 류황건 외, 2012; 임동훈·김혜원, 2012; 김영경, 2012; 이해경·임동훈·김혜원; 2014).

둘째, 스트레스 경험과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도박에 대한 중독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약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도박중독 수준이 낮았다.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스트레스 경험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Jacobs, 1989; Sharp & TARRIER, 1993; Turner, Zangeneh, & Littman-Sharp, 2006; Holub, Hodgins & Peden, 2005; Berge, Pietrzak & Petry, 2006; 남전아·채규만, 2012; 김영경, 2012; 장정임·윤인노·김성봉, 2014)를 재확인하였으며,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관계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대학생 집단으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일반인 집단이나 임상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트레스 경험,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도박중독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연구 결과를 타당화 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문제성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대한 개입이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임상적 함의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도박중독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임상장면이나 치료에서 도박중독을 다룰 때 스트레스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상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내담자의 도박중독행동 이면에 스트레스 경험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간의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그리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도박 관련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도박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따라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을 조절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경험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확인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조절역할을 반영한 상담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합리적 도박 신념을 고려한 개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문제도박이라는 중독적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복순, 김영호(2011). 한국 대학생의 도박참여 실태와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12), 5-28.
- 권선중(2014). 불법 도박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도박중독 수준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20(1), 63-74.
-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균(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9.
- 권중돈, 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학지사**.
- 김교현, 권선중(2003). 병적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및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61-277.
-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2004). 도박성 게임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성 및 병적 도박의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85-320.
- 김나영(2011).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진, 김교현(2013). 인터넷 중독 개선을 위한 인지적 접근: 조절실패와 갈망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421-443.
- 김아영 외(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 김영경(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75-195.
- 김영화, 신성만, 이해주(2012). 청소년 인터넷 도박행동의 실태 및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927-941.
- 김진희(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8). **청소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전아(2010),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 행동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 애착의 중재효과**,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전아, 채규만(2012).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동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 애착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43-657.
- 류황건, 최이순, 장효강, 김정은(2012). 청소년 도박중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1), 153-161.
- 박정열, 김윤영, 유연옥, 허태균(2009).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성격, 동기, 인지, 사회적 관계 및 여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7(2), 113-13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201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5).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 안세윤, 하창순(2008).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지방의 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9(2), 391-403.
-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소영(2011).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357-383.
- 연미영(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14.
- 영남일보(2015). **‘고단한’ 대학생, 자발적 상담 급증**, 3월 19일.
- 유채영(2012). 대학생 문제도박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 윤석주(2014). **전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노, 장정임, 김성봉(2014). 대학생의 도박동기와 자기통제력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3), 237-256.
- 이경은, 하은혜(2011).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1(2), 39-57.
- 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목(2011).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89-213.
- 이선경, 한성열(2014). 대학생의 감각추구성향이 도박에 미치는 영향: 생활 스트레스

- 스의 조절 효과, **여가학연구**, 12(1), 1-20.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정임, 권정혜(2015). 마음챙김기반인지행동치료가 도박중독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인지행동치료**, 15(1), 1-28.
-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2014).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55-176.
- 이지연(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 임동훈, 김혜원(2014). 남녀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에 대한 충동성, 스트레스, 도박신념 및 부모애착의 영향력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16(3), 257-285.
- 이흥표(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 김혜원(2012). 충동성, 스트레스 정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부·모 애착이 남녀 중학생들의 도박 경험 및 미래 도박 가능성과 갖는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 장수미(2013).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 구조분석; 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5(2), 231-254.
- 장수미, 경수영(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18-546.
- 장정연(2011).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에 관한 연구: 선별도구(SOGS-RA) 평가와 영향요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연(2011).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의 유형과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4), 348-381.
- 장정임, 김성봉(2014). 제주지역 청소년의 도박행동 특성 및 도박중독 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학연구**, 21(3), 113-139.
- 장정임, 윤인노, 김성봉(201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중독과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11), 101-123.
- 전겸구, 김교현, 이준석(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정병일(2014). **대학생 도박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영, 신희천(2014).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1), 183-194.
- 주간경향(2015). **똑똑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요”**, 1월 3일.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5). <https://www.kcgp.or.kr/>.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Anderson, G., & Brown, R. I. F.(1984). Real and laboratory gambling, sensation-seeking and arousal.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 75, 401-410.
- Berge A. N., Pietrzak, R. H., & Petry N. M.(2006). Pre/early adolescent onset of gambling and Psychosocial problem in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2(3), 263-274.
- Blaszczynski, A., & Nower, L.(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7(5), 487-500.
- Jacobs, D. F. (1989). A Review of Teenage Gambling and The Plight of Children of Problem Gamblers in America. In H. J. Shaffer, S. A. Stein, & B. Gambino (Eds.), *Compulsive Gamb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oronto: Lexington Books.
- Kandell, J. J. (1998).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11-17.
- Sharp, L. & Tarrier, N.(1993). Towards a cognitive-behavioral theory of problem gambling,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407-412.

<Abstract>

A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Hyeon, Ji-hye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with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beliefs about gambling among college students in Jeju Island,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To attain these goals, research questions are defined as follows:

Question 1. Is there a significant correlation of college students' stress between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beliefs about gambling?

Question 2. Is there a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To explore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recruited students enrolled at



4 colleges in Jeju Island, and 2 colleges were extracted using th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Academic departments were randomly sampled from different colleges using Excel sampling program. A survey was conducted on entire students at the selected departments. A total of 814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the remaining 735 questionnaires were used as final samples, excluding 79 questionnaires with insincere answers.

A life stress test for college students of Gyeom-gu Jeon, Kyo-hun Kim and Jun-seok Lee (2000) revised and corrected by Ji-young Lee (2007) was used to measure stress levels. The 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first introduced by Ferris and Wynne (2001) and adapted by A-young Kim et al.(2001) was used to assess the degree of gambling addiction. An assessment scale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developed by Heung-pyo Lee (2002) based on the Gambling Belief Questionnaire (GBQ) of Steenbergh et al. (1998) was used to evaluate irrational beliefs about gambling. Heung-pyo Lee included a total of 30 questionnaire items by adding items on over-evaluation of gambling strategies to the GBQ of Steenbergh et a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0.0. Frequenc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52.9% (389) were male students and 47.1% (346) were female students. With respect to college year, 34.6% (254) were freshmen, 32.8% (241) sophomores, 20.3% (149) juniors and 12.4% (91) seni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gambling addiction based on the cutoff score of the K-CPGI, non-problem gambl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students at 77.6% (570), followed by 9.7% (71) moderate-risk gamblers, 7.5% (55) problem gamblers and 5.3% (39) low-risk gamblers. About 22.4% of subjects were found to have the risk of gambling, indicating a higher level than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Sun-joong Kwon, 2014)

Secon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st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beliefs about gambling. This outcome impli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tress in daily life, the greater the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beliefs about gambling.

Thir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As a result, the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was identifi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with gambling addiction, a simple slope analysis was conducted. Irrational gambling belief was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correlations among stress, gambling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gambling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reference base for counseling intervention protocol to prevent problem gambling in college students.

## 부 록 목 차

부록1. 스트레스 척도 .....	1
부록2. 도박중독선별 척도 .....	4
부록3.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	8

번호				
----	--	--	--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박<sup>1)</sup>에 대한 생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박신념을 파악하고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으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정보유출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 성 봉 (edutopia@jejunu.ac.kr)

연구자: 현 지 현 (guswgus013@hanmail.net)

## ※ 설문지 응답 요령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 위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시 문항) 귀하는 대학생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도박'이란 '현금, 현물 등을 걸고 하는 내기의 성격이 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및 이외 사설 사행성 활동과 친목목적 게임, 오락형 온라인 게임으로 구분합니다.

**1.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자주 받는다	매우 자주 받는다
1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와 취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예: 성차, 지방대학 등)	①	②	③	④	⑤
5	이성 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이성 친구가 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이성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①	②	③	④	⑤
8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집안 식구가 나에게 불필요하게 간섭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친구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 실망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수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로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회의에 빠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5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자주 받는다	매우 자주 받는다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28	취업 및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 없어서 고민했다.	①	②	③	④	⑤
29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다.	①	②	③	④	⑤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1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32	이성 친구와 말을 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이성 친구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34	집안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5	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36	경제적으로 친구들과 수준 맞추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7	가족으로부터 억울한 비난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①	②	③	④	⑤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1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2	교수가 나의 인격을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43	교수의 강의가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44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45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①	②	③	④	⑤
46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47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8	성적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49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50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도박(돈내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질문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2	귀하는 도박에서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귀하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무엇인가를 판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5	귀하는 자신의 도박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6	귀하는 도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포함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7	귀하는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 행위를 비난 받거나 도박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8	귀하의 도박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9	귀하는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3. 다음은 도박(돈내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도박판에서 이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도박을 할 때 결과는 내 판단력과 기술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도박은 해볼 만 한 도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베팅할 때 하는 특별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 그렇게 하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전에 이겼던 경우는 내가 게임을 잘 분석하고 추리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도박에서 여러 번 지면 다음 게임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도박을 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행운이 따르는' 기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적게 자주 따는 것 보다는 몇 번 크게 따는 것이 훨씬 낫다.	①	②	③	④	⑤
9	결국에는 돈을 잃기보다는 따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도박을 할 때 '승부처(이 때다 싶은 시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도박으로 돈을 잃고 피해를 입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길 것이고 잃은 돈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도박판에서 이기거나 돈을 딴 것은 내 기술이 좋았거나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금까지 잃었으므로 앞으로 돈을 딸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조금만 더 잘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이겼을 텐데 하는 아까운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도박을 계속하면 결국은 돈을 따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금은 돈을 잃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들이 눈에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난 게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게임을 예측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전에 이겨서 돈을 딴 적 있기에 때문에 앞으로 도 어떻게 베팅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도박에서) 이긴 다음에 '이길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하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금까지 돈을 잃은 것은 도박을 배우거나 이기기 위한 투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최근에 돈을 따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거는 횟수나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지금 돈을 잃고 있다고 해도 금방 이겨서 되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 이긴 게임을 아슬아슬하게 놓쳤거나 거의 이길 뻔 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게임을 계속하면 이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도박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길 것이 분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지금까지 돈을 잃은 것은 도박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몇 번 크게 딴 적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다시 크게 돈을 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지금은 돈을 잃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